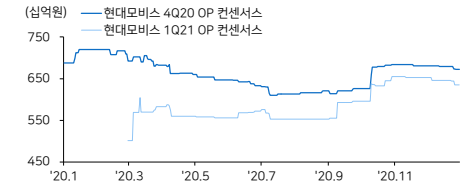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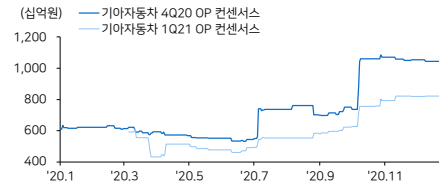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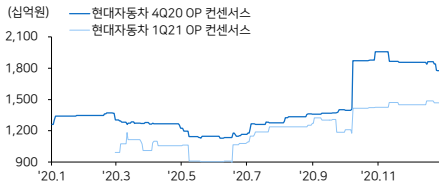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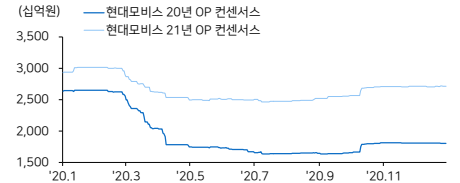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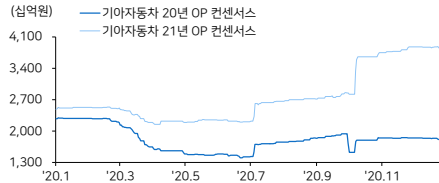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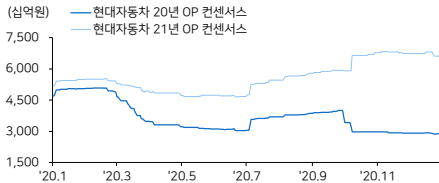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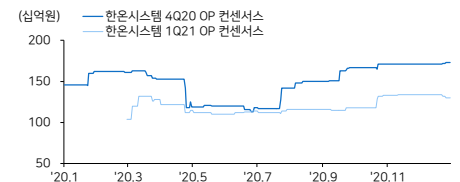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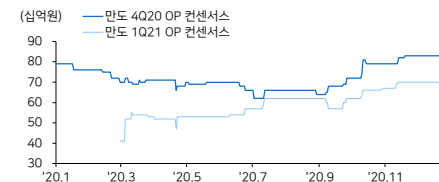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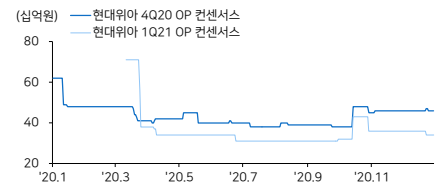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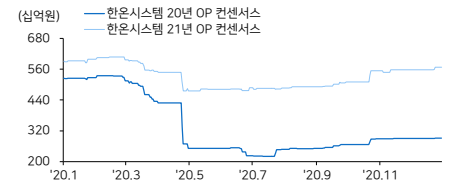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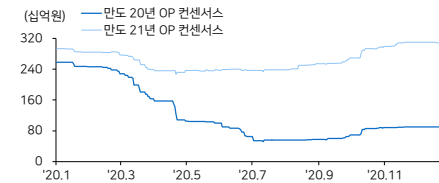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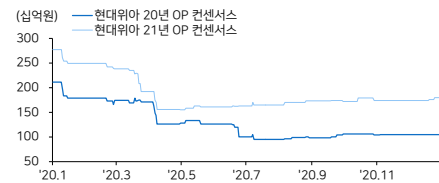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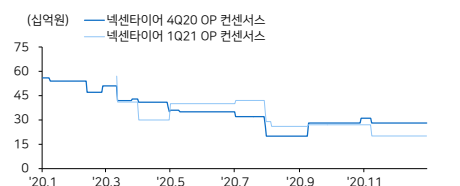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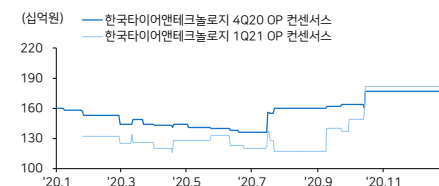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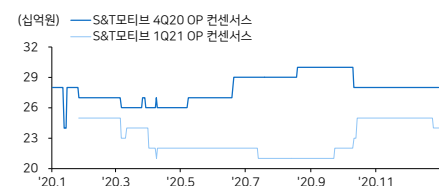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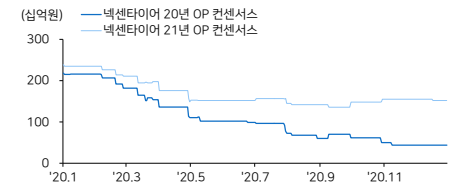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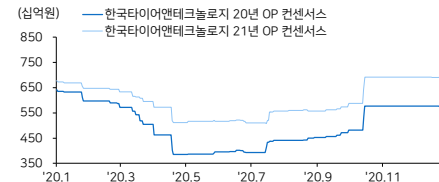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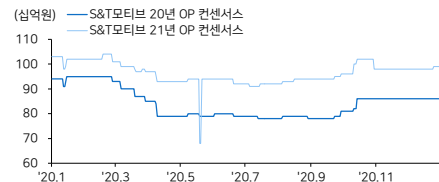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할까...E-GMP 신차에 기대감 ↑ (연합뉴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차를 잇달아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양사의 실적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증권가에서는 올해 현대차가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을 내며 2014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https://bit.ly/3nVH8TW>

현대차, 중국 상용차 판매 반등 신호탄

현대차의 중국 상용차 판매가 본격 반등하고 있음. 지난해 3월 현대트럭엔버스차이나(HTCB)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업 재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달강한 성과로 풀이됨. 현대차는 향후 수소전기트럭 등을 앞세워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

<https://bit.ly/2NKGX65>

현대차도 화물운송업 노릴까? (오토타입스)

미국 GM이 물류 사업에 직접 나서기로 함. GM의 사례를 고려할 때 한국도 예외는 아님. 쉽게 보면 현대차의 화물운송 사업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는 의미. 예를 들어 국내 대형 택배사의 물류를 현대차가 지능형 화물 운송 수단으로 수행해주는 방식.

<https://bit.ly/3qpkVx8>

테슬라, 중국서 생산한 모델 Y 차량 인도 시작 (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SUV 모델 Y의 중국 내 차량 인도를 시작.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로부터 모델 Y의 판매를 승인받았음. 해당 모델의 판매가격은 5만2천400달러(약 5천790만원)부터 시작.

<https://bit.ly/3sCN3Pm>

정익선, 중 공략 '고삐'...고급·전기차 '투트랙'으로 달린다 (e대한경제)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해 이른바 '아픈 손가락'인 중국시장 재공략을 위해 칼을 빼들었음. 특히 그룹의 간판인 현대차의 경우 고급차와 전기차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 트랙'으로 중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

<https://bit.ly/3nUe0KM>

현대차 vs 테슬라...전기차 충전경쟁 막을라 (파이낸셜뉴스)

현대차 하이차저와 테슬라 슈퍼차저의 초고속 충전기 경쟁이 시작됨. 현대차가 올해 국내에 120기의 하이차저 설치에 나선 가운데 테슬라도 전국 27곳에 대한 슈퍼차저 스테이션 설치계획을 공개.

<https://bit.ly/3nS2D7D>

현대위아, 전기차 전용 열관리시스템 개발...현대차 E-GMP 탑재 (아시아경제)

현대위아가 전기차용 차량의 구동 부품과 배터리 부분을 통합해 열을 관리하는 모듈을 국내 최초로 개발. 이 모듈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탑재를 확정 짓고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

<https://bit.ly/2KqM3w1>

FCA-PSA 합병 완료...거대 자동차 그룹 '스텔란티스' 공식 출범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자동차 판매 8위와 9위에 머무른 유럽의 두 자동차 그룹이 합병해 거대 자동차 그룹으로 등장. 유럽의 두 그룹이 융합된 거대 자동차 그룹의 등장으로 2019년 글로벌 판매 5위를 차지한 현대차그룹은 6위로 밀려나게 됨.

<https://bit.ly/3oYrQqi>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